

울뜨레야



전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울뜨레아

(2010년 2월 11일)

성체조배

시작성가

시작기도(길잡이 14쪽)

+ 오소서 성령님

○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 저희가 새로워 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로오신 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영적 독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 루카 6,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뭇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영원한 천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집착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묵상과 영성체 그리고 다른 신심행위 안에서 애타게 하느님을 찾지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레사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느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처리하십시오. 저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실 일이 곧 제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밖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한테 벗어나는 방법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사랑을 얻는 방법은 바른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팀회합: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있는 꾸르실리스타가 될 것인지 토의 바랍니다.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공지 사항:

1. 2010년 행사 계획
2. 기도 빨랑까

2010년도 1월 현황 (1, 2 월 예정)

- a. 양팔기도: 287 (30)
 - b. 묵주 기도: 1875 (3000)
 - c. 희생: 15 (200)
 - d. 화살기도: 337 (2000)
 - e. 미사: 82 (100)
 - f. 성체조배: 43 (200)
 - g. 십자가의 길: 9 (30)
 - h. 주모경: 430
- 총계: 3051 (5560)

마침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모 마리아님, 오늘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오로지 지존하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 되도록 빌어 주소서.

“하느님의 은총이 제 안에 언제나 머물러지이다.(세번)

(성호경)

마침 성가

우정의 시간

2010년 행사계획

1/14(목)	월례모임
2/11(목)	월례모임
3/11(목)	월례모임
3/27(토)	Walk-A-Thon
4/8 (목)	월례모임
5/13 (목)	월례모임
6/10 (목)	월례모임
6/26 (토)	Walk-A-Thon
7/8 (목)	월례모임
7/17 (토)	꾸르실리스타 가족 야유회
8/12 (목)	월례모임
9/9 (목)	월례모임
9/19 (일)	마냐니따
10/23 (토)	북가주 전체 울뜨레야
10/30 (토)	Walk-A-Thon
11/20 (토)	울뜨레야 총회 및 송년 모임